정읍 맞춤형 벼 품종 첫 수확 결실

시, 품종개발 사업 1년차 예비·비교품종 10개 종 이삭수·알수·등숙률 등 조사 2025년 적합 품종 선발해 등록

정읍시가 지역 맞춤형 벼 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읍시는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벼 품종 개발을 위해 지난해부터 농촌진흥청과 함께 추진 중인 '맞춤형 벼 품종개발(SPP) 사업' 1년 차를 맞아 첫 수확을 마쳤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지역 맞춤형 벼 품종개발 사업'은 품종개발 주체인 농촌진흥청과 수요자인 지자체·농업인·미곡처리장(RPC)·소비자가 참여해 지역에 맞는 벼품종을 개발하고 품종으로 등록해 차별화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해 지난 6월2일 예비품종 '전주 677호' 등 5개 계통 과 '안평벼'등 5개 비교품종을 덕천면 도계리 일 원 들녘에 식재했다.

이후 지난 9월20일 농진청 현장평가단의 점검을 거친 후 지난 10월12일 벼를 품종별로 수확한 뒤 이삭수부터 알수, 수량, 등숙률 등의 품종특성을 조사하는 중이다.



지난 6월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정읍에 맞는 정읍만의 벼 품종을 만들기 위해 덕천면 일원 시험 포장에서 직접 벼 모내기를 하고 있다.

시와 농진청은 생산 농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식미테스트를 통해 미질까지 종합적으로 평가 할 방침이다.

이후 지역 적응시험과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전시포 조성과 품종평가를 실 시하고 2025년에는 정읍에 가장 적합한 품종을 선 발해 품종으로 등록하는 등 우수 품종을 보급할 계 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시를 대표하는 인지도 있는 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품종 선정이 중요하다"며 "충분한 소통 과 철저한 평가를 통해 정읍 맞춤형 벼 품종개발과 유통 기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복합형 공공도서관 새 명칭 공모

13일까지…12월15일 발표

남원시가 오는 2024년 4월 준공 예정인 복합형 공공도서관의 새 명칭을 공모한다고 지난 31일 밝 형다

복합형공공도서관은 금동 343-8 일원 연면적 2163㎡(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진행 중으로 남원시 대표도서관으로 지식·문화의 중심적역할을 수행하고 누구나 자유로이 열람하고 휴식할 개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남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내용은 남원시 대표도서관의 상징성과 도 서관 이미지를 표현하는 명칭이나 도서관의 공식 명칭으로 적합하며 부르기 쉽고 특색있는 명칭이 다. 명칭에는 '도서관'이 꼭 포함돼야 한다.

신청 방법은 남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된 명칭들은 상징성과 독창성, 적합성, 대 중성의 4가지 심사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



남원 복합형 공공도서관 조감도

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12월 15일(예정) 시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당선작에 대한 부상으로 최우수자(1명)에는 50만원, 우수자(2명)에게는 각 2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지양근 남원시 교육체육과장은 "소통과 배움, 열린 지식문화 공간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남 원시 복합형공공도서관의 새 명칭 공모에 시민 많 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장애인 재활 돕는 '장애인 인권영화제'

2~3일 고창동리시네마…장편·단편 각각 3편 상영

사단법인 한두레장애인자립생활협회가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고창동리시네마 1관에서 장애인 인권영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영화제는 한두레장애인자립생활협회가 주최하고 고창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주관하며 전라북도 장애인단체 재활지원사업 지원금으로 진행하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장애인 인권영화제는 '시간은 삶의 여정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이다' 주 제로 장편 3작품, 단편 3작품이 상영된다.

2일 오후 2시 개막작으로 영화 '거짓말'이 상영 되고 이후, 영화를 제작한 양준서 감독(2023년 제 21회 서울장애인 인권영화제 심사위원상 수상)과 의 대화가 이어진다.

또 '내겐 너무 소중한 너', '나는 보리', '오아시 스', '질주', '느낌표와 물음표 그 사이(다큐)'가 상영된다.

정종구 한두레장애인자립생활협회 회장은 "영 상매체를 통해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지역사회 활동사업 일환으로 장애인의 다양한 일상과 소통 하여 장애인 비장애인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고 서 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모두 같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쌀' 달콤한 변신…맛·건강 챙긴 쌀빵 만들어요

고창군, 쌀 소비 촉진 장려 여성농업인 대상 제빵 기술 교육

고창군이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빵 만들기 교육'에 나섰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빵 만들기 교육'을 한창 진행 중이라며 11월 '농업인의 날'을 통해 쌀빵 시식회를 열 예정이라 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쌀 소비 확대와 쌀의 영양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초보자도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소금빵, 베이글 등 6종의 빵을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으로 편성됐다.

교육 대상은 생활개선회원 등 20여명의 여성농 업인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가루쌀 바로미2'를 이용해 반죽과 숙성 등 다양한 제빵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한 교육생은 "밀가루를 대신해 쌀로 만들어진 빵이 가족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쌀이 빵으로 변하는 과정이 신기하기도 하지만 맛과 특 유의 식감이 밀가루보다 더 좋다"고 말했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도 "쌀빵은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이 다량 포함돼 있으며 특히 식이 섬유가 풍부해 간편한 식사 대용으로 사용하기 좋 다"면서 "식생활과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해 쌀 소



고창군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쌀빵 제빵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다.

〈고창군 제공〉

비량이 줄어드는 상황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우리 쌀을 활용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소 비 촉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의 가을밤, 오페라로 물들다

6일 정읍사예술회관

정읍시가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 하고자 이탈리아 정통 오페라 공연을 마련했다.

정읍시는 오는 6일 오후 7시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이태리 푸치니 오페라 페스티벌'주역가수 초청 '오페라 갈라콘서트'를 연다고 밝혔다.

공연은 사단법인 호남오페라단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급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

주요 출연진은 세계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제수아 갈리포코와 바리톤 자코모 메디치를 비롯한 9명으로 구성된 '뮈토즈 챔버 싱어즈' 등이다. 관람 대상은 8세 이상이며 관람료 무료, 입장은 공연 시작 30분 전부터 선착순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



자코모 메디치(왼쪽), 제수아 갈리포코

는 다양한 문화공연을 개최해 문화적 갈증을 해소 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